

제28차 정기총회 회의록

일 시 : 1982년 4월 9일(금) 오후 2시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 안 건 : 1) 개회식
 2) 감사패수여
 3) 제14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4) 1981년도 사업실적보고
 5) 1981년도 결산 및 회계 감사 결과보고
 6) 198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7) 기타

참석회원 : 참석 240명, 위임 59명
 계 299명

<회의내용>

1. 개회식

국민의례에 이어 이봉순회장의 개회사와 노계현 국립중앙도서관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2. 감사패수여

광주시립무등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여 기증한 이명박 현대건설사장에게 감사패 수여를 하다

3. 제14회 한국도서관상 시상

제14회 한국도서관상을 공적상 7명, 봉사상 5명에게 수여하다.

—10분간 휴회—

4. 성원보고

단체회원 재적 567명중 참석 240명, 위임 59명, 계 299명의 참석으로 본회

정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성원되었음을 사무국에서 보고하다.

—이봉순 회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리재철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하여 의장을 맡아 진행하다.—

의장(리재철 부회장)은 성원되었음을 확인한 다음 제28차 정기총회의 안전처리를 위한 회회를 선언하고 이어서 안전처리에 들어가다.

5. 안건 1. 1981년도 사업실적 보고

박대권 사무국장이 유인된 1981년도 사업실적 보고서에 의하여 사업별로 상세히 보고 설명하다.

—의장은 이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 있는지 묻다.—

—질의사항없이 동의안과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이를 박수로서 만장일치로 원안을 접수하다.

6. 안건 2. 1981년도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보고

(1) 사무국에서 1981년도 결산보고를 유인된 1981년도 결산서에 의하여 관항 특별로 상세히 보고 설명하다.

(2) 이어서 김남석 감사는 이용남 감사 배석한 가운데 1981년도 회계감사 결과를 감사일, 감사내용, 급피조사, 각종 채권채무, 세입, 세출, 지적 및 시정조치 사항의 순서로 상세히 보고하다.

—의장은 이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는지 묻다—

—질의사항이 없고 감사가 세밀히 감사한 결과를 보고했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와 재청 삼청이 접수되어 전원 단장일치로 본안건을 접수하다.

7. 안건 3. 198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사무국에서 198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유인된 198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의하여 사업별 관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하다.

—의장은 이에 대한 의견을 묻다.

(1) 광중영 (경상대학교도서관장)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의견을 제시하다.

① 개인회비 미납이 많은바 이는 회원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한 점에 기인된 것이며 협회에 대한 참여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협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도서관법 개정문제를 비롯하여 당면 현안 문제점 해결이 부진한 것 같다. 협회의 사업활동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신년도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바 최근 정부등 각 기관에서 인건비 인상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추세에 있는데 사업비 예산에 치중하도록 노력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④ 협회에서는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회원들이 협회의 혜택을 받고 아울러 협회는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서 신용조합과 같이하여 도서관 용품 또는

카드 등을 개발 보급하는 등 내용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를 바란다.

(2) 이에 대하여 의장은, 광중영 회원이 전체회원의 의견을 대변한 것 같아 의장 자신도 동감을 느낀다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개인회비 미납 문제는 회원들의 참여의식의 결여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협회의 위치가 교통이 불편한 곳에 있어 납부하기가 불편함으로 본의 아니게 미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도서관별로 징수하는 방법 등 개인회비 징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책정 문제는 과연 과다책정된 급여액인지 아닌지를 이사회에서 재검토하여 과다 책정되었다면 재조정토록 건의하겠다고 하다.

(3) 박대권 사무국장은 협회의 재정상태가 근본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자연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다른 유사직종과 비교할 때 사무국장의 봉급이 대학도서관과장 봉급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직원에 대한 급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분은 언제든지 사무국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회원을 위한 사업추진 문제에 대하여 그간 사무국에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사업자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도서관 용품이라든지 카드 등을 전문단체인 협회에서 개발하고 보급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를 검토해볼만 하다고 하다.

—의장은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이 없는지 재차 묻다—

—이에 대하여 박성기회원(숙대도서관)은 원안통과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삼청이 들어오다.

—개의안 제출없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다—

—의장은 198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다—

8. 안건 4. 기타

(1) 김경룡 회원(부산동래상고)은 오늘 총회에 참석키 위하여 멀리 천리길에서와보니 중요한 안건처리를 하는 이 시간에 참석한 회원은 개회식에 참석했던 회원수보다 절반도 안되는데 총회 안건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중요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시상식을 하면 회원의 참석이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총회를 진행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

(2) 이에 대하여 리재철 의장은 회의 순서는 제대로 된 것인데 회원들이 참여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점도 있겠으나 모처럼 서울에 오셔서 제한된 시간에 불일도 있고 하여 참석자 수가 줄어든 것 같다. 앞으로 총회라든지 대회 등 협회 행사에 회원들이 보다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설명하다.

(3) 임태삼 회원(부산산업대)은 ①도서관법 개정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②출판예정도서명을 미리 알려 주어 학과에서 교재로 채택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약속된 시일에 출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하다.

(4) 이에 대하여 리재철 의장은 출판

물이 예정 기일에 출판되지 않는 것은 집필자의 원고작성 지연에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며 사무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안다고 설명하고 도서관법 개정 문제는 지난 해에 그 기초가 완성되었고 현시점에서는 실질적으로 검토되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중에는 반드시 개정이 실현되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다.

(5) 리재철 의장은 협회의 재정 문제와 회원들의 참여의식 고취 문제 등과 관련하여 그간 이사회에서 수차 논의된 결과로서 평생회원제도와 특별회원 제도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면서 이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하다.

(6) 의장은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제14회

한국도서관상 수상자

<공적상>

- 이한룡 연세대학교중앙도서관장
- 조기홍 대전성모여중사서교사
- 이병수 경남공업고등학교교감
- 남복식 대구직할시립도서관사서과장
- 민병재 전남대도서관열람과장
- 남승면 성균대도서관열람과장
- 현규섭 국립중앙도서관산실장

<봉사상>

- 이춘선 중앙대도서관사서
- 박해중 고대중앙도서관정리과장
- 이범호 중앙대도서관열람과장
- 김원용 전북대도서관열람과장
- 서기석 이화여대도서관사서